

손보업계에 서서히 불어 오는

새 바람 : 위험관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

우리는 이미 본지 제2호의 논단을 통하여 Risk Management 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서 조만간 고양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협회의 기술 업무의 미래도 밝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8월초 보험 공사에서 개최된 업계 대표자 간담회에서의 우리 나라 손보업계 전반에 걸친 현황 검토와 문제점 해결 방안에는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위험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반가운 소식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각 보험 회사의 반응을 살펴 보면, 일부는 그 의미에 대하여 뚜렷한 개념이 없거나 회의적인가 하면, 다른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벌써부터 이에 대한 준비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의 반응이 어찌 되었든 그 실시 시기가 문제이지 그 방향은 이미 확고히 결정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Risk Management 를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 회사의 하나로 미국의 Factory Mutual System (FM) 을 들 수 있거니와, 이 FM 은 단순히 부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적극적인 위험 관리로써 경영의 합

리화는 물론 사외 봉사까지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 Risk Management 의 요체는 엔지니어의 활용이란 말로 표현이 된다.

즉 FM 은 소방 설비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에 중점을 둔 위험 관리를 실시, 엔지니어를 정기적으로 부보대상 물건에 보내어 점검을 하고 결함을 발견할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부실 공사를 하지 않는 한 거의 그 작동에 실패가 없으며, 작동상의 실패도 그 원인은 대개가 관리 소홀에 있는 만큼, 관리만 잘한다면 이재 발생의 확률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기술을 활용하면 경쟁 회사보다도 월등히 유리한 보험 요율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우리 협회 건물을 방문한 FM 출신의 한 미국인은 우리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고 그 용량을 계산해 보더니, 자기로서는 불과 수 달러에 우리 건물 보험 인수를 하겠노라고 공언하는 것이었다.

FM 과 같이 기술을 앞세운 Risk Management 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보험 회사들이 만약 우리 나라에 대거 진출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요율 체계도 자유화되고 외국 보험 회사들과의 경쟁도 무방비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나라의 보험 회사들이 그 도전을 감내할 수 있을까?

우리 나라의 보험 회사들도 이제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적극적으로 보험 기술을 개발하고 예상되는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 협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도 더욱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만 할 것이다.

새 바람은 의외로 빨리 불어올 수도 있다.